

들어가는 글

이 글의 목적은 신학적 쟁점의 하나인 여성 사역자의 당위성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자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보는데 있다. 더불어서 ‘목사’와 ‘장로’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왔는지, 신약성서교회가 쓴 개념과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개념을 재고하자는데 있다.

이 글은 학술논문의 성격보다는 필자가 이전부터 생각해 왔고 깨닫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1. 유대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부족시대로부터 히브리 공동체들은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장로회를 두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배이후 하루 세 번 바치던 성전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루 세 번 모이는 기도회를 발전시켰는데, 그 장소가 회당이였다. 회당은 기도회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 율법재판이 이뤄지는 유대교 공동체의 중심이였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유배지들과 남의 나라들을 떠돌았지만,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끝내 살아남아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당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에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당장들이였다. 또한 이들은 회당의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판관들이였다. 이들은 예배와 교육의 책임은 물론이고, 율법규정에 따라 곤장을 치게 하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율법은 613개의 토라계명들뿐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오다 주후 200년부터 500년 사이에 기록된 탈무드에 담긴 규례와 관습법들까지 포함되였다. 그들이 관리했던 회당이 예배당이자, 학교였고, 지방공회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마 10:17),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눅 21:12),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행 22:19)와 같은 성구들이 회당이 지방공회였음을 말해준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은 세 명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이나 증인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가버나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이들 장로들이 회당장들이였다(눅 7:3). 이들이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였고(마 23:6), 야이로는 “회당장들 중 한 명”(막 5:22)이었으며, 예수님, 바울, 바나바 등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각

회당의 회당장들이 이를 허락했기 때문이다(막 1:21, 눅 6:6, 행 13:15, 19:8).

유대인들의 기도회는 매일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 회당에 모여 18(19)개의 베라코트로 이뤄진 ‘쉐모네 에스레이’를 낭송하고 시편들을 노래(chanting)하며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오전 기도회 때에는 모세오경을 54개로 나눈 ‘파르쉬요트’(Parshiyot) 가운데 해당 주의 ‘파르샤’(Parshah)를 1개 혹은 2개씩 및 역사서(전기예언서)와 예언서들 가운데서 해당 주의 파르샤와 관련된 몇 개의 성구들로 구성된 ‘하프타라’(Haftarah)를 봉독자를 통해서 읽는다(눅 24:44, 행 13:15).¹⁾

설교는 해당 주의 파르샤와 하프타라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으로써(행 28:23) 필요할 경우 회당장들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 등이 나서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대교가 교리종교가 아니고 실천종교이기 때문이었고, 기도문을 낭송하기 위한 모임의 특성상 전담 설교자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회당에 설교자가 따로 없었고 회당장이 여러 명이었다는 증거는 신약성서에 많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4-15절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파르샤와 하프타라)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학교육을 받은 랍비들이 그리스도교의 목사들처럼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유대교의 장로들은 모두 남성들이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Bar Mitzvah)들을 뜻하였다. 여성들은 계명들을 지켜야 할 의무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통파(근본주의)를 제외한 보수파, 개혁파(진보주의), 재건파(급진주의)에서 여성 랍비들을 허용하고 있다. 1922년 재건파를 세운 랍비 카프란(Kaplan)은 남녀동등의 차원에서 ‘계명의 딸’(Bat Mitzvah) 성인식(남자는 13세에, 여자는 12세에 행하는 유대교 성인식)을 처음 도입하였고, 개혁파에서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 보수파에서는 1980년대부터 여성 랍비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계명의 딸과 여성 랍비를 수용하는 유대교 교파들, 특히 개혁파와 재건파는 정통파가 중요시하는 토라의 의식법보다는 도덕법을 더 중요시한다.²⁾

2. 신구약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의 경우 교회의 감독자와 치리자들이 장로들이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복동생 야고보였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도들과 선지자(예언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도 있었다. 장로들이 지역교회 공동체의 감독자와 치리자들이었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1) Judaism101, “Jewish Liturgy” 및 “Torah Readings,” <http://www.jewfaq.org/readings.htm>, [2018년 9월 16일 인용].

2) “Four branches of Judaism,” https://media.lanec.edu/users/borrowdalej/rel203_f13/jewish_sects.html, [2018년 9월 16일 인용].

교사들과 전도자들은 파송을 받아 교회들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었다(행 13:1-3, 딤후전 4:14).

사도들의 직무는 일차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었다(행 2:42, 6:2,4).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이 직무에 충실코자하여 성도들을 섬길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이들 일곱 사람들은 모두 디아스포라(헬라파) 유대인 남성들이었다(행 6:5). 예루살렘교회에는 사도들 이외에도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행 11:27-30) 이들 일곱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는지, 선지자들이었는지 혹은 집사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때 뽑힌 빌립이 전도자였다는 점이다(행 21:8). 안디옥교회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신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 지도자들로 부각되어 있다(행 13:1).

바울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설립한 후 복수의 장로들을 선출하여 장립한 것은 바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들에 필적한 것이었다. 개개의 회당에 세 명의 회당장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지 교회들에도 세 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예루살렘교회에도 복수의 장로들이 치리하였다(행 15:4,6). 바울이 세상 법정을 멀리하라고 권면한 것은 교회에도 회당장들에 해당되는 이들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전 6:1-8).

개교회의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목자(사)와 감독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신약성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져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직책이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자와 감독자임을 주지시켰다. 동일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를 일컬어 ‘장로’라고 하였다(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설교자일 필요는 없었다. 성례를 집행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맡아하는 장로 설교자는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주교/감독의 직무는 다수 장로들의 으뜸 곧 오늘날의 담임 목사에 필적하는 것이었다.³⁾

구약성서시대 때부터 이미 여성 사역자들은, 비록 그들이 감독자와 치리자들은 아니었을지라도, 분명 존재해왔다. 구약시대에 미리암(출 15:20), 드보라(삿 4:4), 홀다(대하 34:22, 왕하 22:14), 노아다(느 6:14), 안나(눅 2:36) 등의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다. 신약시대에도 여성 선지자가 있었다.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행 21:8-9).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롬 16:3)는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일군이었고, 바울의 추천을 받았던 뵈뵈(롬 16:1-2)는 켈레시아 교회의 일군이었으며,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빌립보교회의 일군들이었다(빌 4:2-3).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따르면,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과 미모를 지닌 전도자 테클라(Thecla)도 있었다.

3) J. B. Lightfoot, “Epistles of S. Ignatius to the Smyrnaeans viii.”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6), 84.

뵈뵈의 직책이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이다. ‘디아코노스’는 ‘집사’ 또는 ‘일꾼’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쓰이는 범위가 넓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모두 ‘디아코노스’였다. 이 용어를 ‘집사’로만 생각해서 뵈뵈를 여성 집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만일 뵈뵈가 정말 집사였다면, 집사도,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직이기 때문에 뵈뵈를 성직자로 볼 수 있게 만든다. 여성이 집사와 장로직에 올랐다는 기록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나 주후 112년경에 소 플리니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쓴 편지에서 비두니아 지역에 거주한 두 명의 여성 집사를 언급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⁴⁾

우리말 성서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모두 설교자이다. 다만 ‘선지자’는 히브리어의 ‘로에’(ro'eh)나 ‘호제’(chozeh)에서 나온 말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렘 24:1, 겔 37:1, 암 7:1, 스 3:1)을 전한 자들이었다면, ‘예언자’는 히브리어 ‘나비’(Nabi)에서 나온 말로써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⁵⁾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 선지자들도 설교자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성들이 예언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당대의 악명 높았던 바쿠스축제와 그 축제를 주도한 여성 사제들의 광기 때문이었다. 바울시대에 바쿠스(디오니소스) 여성 사제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디오니소스 지팡이(thyrsos)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해 예배자들과 함께 머리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며 광적이고 음란한 춤을 추었다. 바울이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수건으로 머리를 덮어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격식을 갖춰 시행할 것을 권면한 이유를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전 11장). 플라톤은 저서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신들림을 ‘신성한 광기’라고 부르면서 예언적 광기가 아폴론에게서, 비의(秘儀)적 광기는 디오니소스, 시적 광기는 뮤즈, 사랑의 광기는 에로스에게서 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광기는 신의 영감 혹은 신의 선물 곧 은사를 뜻한다. 델포이는 이 예언적 광기가 충만한 대표적 신탁소여서 피티아의 예언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곤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광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진짜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2절에서는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 델포이 신전의 피티아(Pythia)의 광기나 바쿠스(디오니소스) 여성 사제(Maenad)들의 광기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 의한 거짓 것됨을 암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광기가 접신을 시도하는 박수나 무녀들뿐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어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광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잣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신앙고백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신령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4) Pliny Epistles 10.96 and 97, (Richard Hooper tr.).

5) 왕대일, “예언자와 선지자 - 예언서 읽기(2),” <기독교타임즈>.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2>, 2003년 1월 23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가장 뛰어나게 표현된 것이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며, 인간을 회개케(권면)하여 회복(희망, 위로)시키고 세우는(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였다.

평소 바울의 지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갈 3:28)는 것이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한 몸이란 것이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 종족의 차별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에베소 3장에서는 이 사실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9절)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8절)이라고까지 하였다. 구원에 차별이 없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행 6:4) 목회사역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구약성서의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의 활동내용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이었다. 이 두 운동의 근거는 하나님과 히브리민족사이의 언약이었고, 그 내용이 토라(모세오경)이고, 토라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토라는 총 613개로써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할 4개의 계명과 이웃에게 지켜야할 6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라이외의 나머지 구약성서들은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뉘는데, 성문서는 예배와 전도문서이고, 역사서(전기예언서)와 예언서는 두 가지 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토라에 근거하여 성찰한 영감의 글들이다.

성서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의 예언자들과 신탁소의 무당들처럼 앞날에 대해 점을 치지 않았다. 그들의 예언활동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 떠나 재앙을 당하는 백성에게 회개운동을 펼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회복운동을 펼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은 이 회복운동에 포함된 것이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도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쳤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3:2)였다. 교회시대의 문을 개방한 베드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행 2:38)였다. 바울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구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보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신령한 자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라고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말씀 선포)을 하려고 하라”고 권하였다.

성서시대에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또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설교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성 설교자들을 금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2세기 무렵부터는 설교와 복음전파를 전담했던 떠돌이 순회사역자들이 교회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둘째, 이미 교회들은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하던 때로부터 에비온파(유대교적 그리스도교)와 영지파(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적 그리스도교)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으며, 사도들이 죽은 이후 교회들은 떠돌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단성이 없지 않은지 먼저 의심부터 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 결국 교회들은 3세기말까지 남성 장로들의 지도와 감독아래 지속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배당은 적어도 4세기말까지는 유대교 회당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당시 예배당의 입구는 동쪽에 베마와 성서궤는 서쪽에 위치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대교 회당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성소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것과 같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배도 그 기본적인 틀이 유대교 기도회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의 차별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매일 세 번 낭송한 쉘모네 에스레이를 대신하여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낭송하도록 권하였고, 유대교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던 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도록 권하였으며,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물속에 잠기는 개종 침례와 매주일 행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⁷⁾

3.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313년 박해시대가 끝나자 교회는 삼위일체와 단일신론으로 심각하게 분열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 주교들을 니케아에 모이게 하여 이 문제를 토론하게 하였고, 삼위일체파들이 단일신론파를 누르고 만들어낸 최초의 신앙고백서가 바로 ‘니케아신조’였다. 이후로도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380-90년대에 밀라노의 테오도시우스 대제,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지한 삼위일체신앙이 보편적(catholic) 신앙으로 굳어졌고, 392년 그리스도교가 제국종교가 되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하는 미사의 제사화 곧 봉헌신학과 성체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장로들이 제사장으로서 둔갑되어 계급화 되었고(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혹은 보제, 사제,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설교와 대표기도가 순서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4세기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역교회 공동체들에서 떠돌이 순회 목회자 개념의 전도자, 선지자, 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여성 감독자와 목양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장로들은 16세기에 칼빈과 존 녹스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원칙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회중의 대표가 치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교회체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20인, 60인, 200인의 시의회들에서 전통에 따라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들만으로 배정된 인원수대로 치리 장로들을 선출하였고, 칼빈은 이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바가 있다. 존 녹스 역시 칼빈이 제네바에 확립시킨 개혁교회 장로회 제도를 도입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정착시켰다. 스코틀랜드에서 회중이 선출한 치리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당회(session)가 스

6)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왜관:분도출판사, 1993), “제11장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접대” 및 “제13장 불박이 예언자들과 교사들 공양,” 81-92.

7) 앞의 책, “제7장 세례” 및 “제8장 주간 단식과 주님의 기도.” 55-64; 이형우 역주, <히브리투스 사도전승> (왜관: 분도출판사, 1992), “제21장 거룩한 세례의 전통에 대하여,” 127-142.

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은 1563년부터였다. 이때 치리 장로의 임기는 제네바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이었으나 인적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1578년부터는 종신직으로 바꿨다.⁸⁾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교회체제 아래에서조차 16세기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들은 임기가 제한된 평신도 선출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실용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뿐으로서 대속제일 날 하루 두 차례 정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성막시대에는 백성이 출입할 수 없는 문(성막회장, 성소회장, 지성소회장)이 세 곳이나 되었고, 성전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미문(민족의 담),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곧 계명의 아들들만이 출입하는 니카노르문(성별의 담), 제사장들만이 출입하는 제사장의 문(신분의 담), 대제사장만이 출입하는 지성소의 문(계급의 문)이 존재하였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출입하는 유일한 문이시라는 점과 문이 그분의 육체임을 강조하고 있다(요 10:9, 히 10:20). 예수님은 문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상징하는 지성소회장을 갈라놓으심으로써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히 10:19) 하였고,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히 10:22) “새로운 살 길”(히 10:20)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만인사제의 의미이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주장하는 교황과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는 사제들로 인해서, 곧 가톨릭교회의 유대교화로 인해서, 개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다시 막혀 버렸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연 자들이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이었다.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은 “근원(뿌리)으로부터”(Ad Fontes) 곧 성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고, 고대 사본들을 찾기 위해 유럽의 도서관들과 수도원들을 조사하였으며, 성경의 원본을 복원하고 이를 모국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운동이 츠빙글리와 스위스 개혁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운동의 영웅들인 루터, 츠빙글리, 칼빈, 부처, 녹스는 본래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이었고, 국가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다.

8) 강원돈, ‘교역윤리 3: 교회 치리회 구성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강원돈의 신학아카이브>, <http://socialethics.org>, 에세이_59번, 2010년 2월 22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따라서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영국교회가 다 국가종교였으며, 국가종교에 반대하여 정교 분리를 주장한 재침례파와 청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나 국가는 이들을 역사나 화형으로 다스렸다.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장로제도는 평신도 대의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의해서 여성들을 배제시킨 채 남성들만으로 뽑힌 장로들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제도였다.

‘목사’라는 호칭은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로써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시대나 가톨릭미사에서처럼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제단도 사제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만인사제의 의미는 사제체제를 엄히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종교개혁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제도가 분명 평신도 대의제란 점에서 볼 때 여성이 선출직 장로나 설교자 또는 전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4.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유럽에서는 개신교조차도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종교체제였으나 신대륙 특히 미국에서는 자유, 독립, 개혁, 일치(연합), 실용이라는 정신이 충만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교회들에서는 떠돌이 순회 사역자들의 개념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 대의제 장로와는 별개인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 개념이다.

1달러 지폐 뒷면에 그려진 두 개의 미국합중국 국장은 연합, 자유, 독립, 개혁정신의 상징으로써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13개주를 연합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피 주시고(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연합, 자유, 독립, 개혁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환원운동가들은 떠돌이 순회 목회자들을 “복음 선포, 새 신자 양성, 교회 개혁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파송된” 전도자(목회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장로들을 “교회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아 공동체를 이끌고, 가르치고, 덕을 쌓게 하고 - 지식과 이해로써 주님의 교회를 먹이고 - 그들의 영혼들을 지키는 자들”로 보았다.

캠벨의 개혁가들과 스톤의 그리스도인들이 통합한지 10여년이 경과된 1840년대에 이르러 대학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교회에 초빙되어지는 유급 전임목회자들의 시대가 열렸고, 이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토론이 1890년대에 이르러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편에서는 전도자(목회자)들을 장로들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장로들의 엄격한 감독과 지배에 복종해야 할 자들로 보았고, 다른 편에서는 전도자(목회자)가 여러 장로들 가운데 주도적이고 첫째가 되는 장로라고 보았다. 이 경우 장로들은 조언을 하거나 주의 만찬상을

섬기고 목양을 하는 자들이며, 전도자(목회자)는 으뜸 장로로서 일차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자이다.⁹⁾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오늘날의 일부 교회들에서는 전도자(목회자)들도 매년 하는 선출직 장로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1) 19세기 여성 사역자들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제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유무악기 분열이전 시대인 1800년대에 안수 받은 여성 사역자들이 2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이름과 사역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에 실린 ‘교역/목회(Ministry)’와 ‘여성 사역(Women in Ministry)’에 관한 논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¹⁰⁾

2) 20세기 여성 사역자들

(1)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 서의 여성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보노선을 걷고 있다. 여성목사 안수에 가장 적극적이며, 미국 대통령 Barack Obama의 취임식 뒤에 열린 전통적인 국가 기도회(National Prayer Service) 때에 설교를 맡은 목사가 바로 제자들의 총회장인 샤론 와킨스(Sharon Watkins) 여성 목사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독립교회들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완전히 분리되어나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968년 교단을 재구성한 이후로 안수 받은 여성 사역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소재한 브라이트신학대학원의 총장 뉴웰 윌리엄스(D. Newell Williams)의 조사에 의하면, 1984년까지 제자들 여성 목사가 112명(제자들 목사들의 4.2 퍼센트), 제자들 여성 부목회자가 120명(제자들 부목회자들의 32.8 퍼센트)이었고, 1984년 595명의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들은 전체 안수 받은 제자들 목회의 거의 10퍼센트에 상당하였다. 1980년대 초에 여성들은 제자들 신학대학원 등록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2000년까지 그 비율은 2분의 1까지 증가하였다.¹¹⁾ 1990년까지 제자들의 담임 목사 또는 단독 목사가 15퍼센트, 부목사가 39퍼센트로 올라섰다. 2000년에는 제자들 목사들 가운데 22퍼센트가 여성으로 채워졌다.¹²⁾

9) Peter M. Morgan, "Elders, Eldership,"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297-299.

10) 정남수외,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9-30, 502-507.

11) D. Newell Williams, et. al., "Minist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530.

12) Debra B. Hull, Kathy J. Pulley,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The*

(2)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1906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갈라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960년대까지 교회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1970년대에는 캠퍼스 사역자로 여성들이 고용되었으며, '여성 카운슬러'로 불렸다. 이후 여성들은 교육목회,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상담목회, 구제목회 등에 고용되었고, 종종 '목회자'(ministers)로 불렸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여성사역자들을 '디렉터'(directors)로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목회자'(ministers)로 고쳐 부르는 추세이다.

1989년 '브루클린 그리스도의 교회'(Brookline, Massachusetts)는 교회사역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대중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술을 후보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 교회는 1987년에 두 명의 강단 목회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여성을 고용한 바 있다. 최근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측면의 사역을 담당할 목회자로 남편과 부인을 한 팀으로 고용하였고, '베링 드라이브 그리스도의 교회'(Bering Drive Church of Christ in Houston)와 '스탬포드 그리스도의 교회'(the Stamford Church of Christ in Connecticut)와 같은 다른 교회들도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여성들의 고용도 점증하고 있다.¹³⁾

(3)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98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10퍼센트의 교회들이 여성 집사들을 두고 있었고, 그 수는 약 8천 명 가량이며, 약 1퍼센트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100여명의 여성 장로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약 38퍼센트의 교회들이 960여명의 여성 목회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 여성 목회자들은 대부분 교육, 음악, 초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부목이나 원목으로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들은 거의 없었다.¹⁴⁾

1997년에 발행된 <목회 주소록>(1997 Directory of the Ministry)에 의하면, 담임 목회자 또는 협력 목회자가 2명, 부목회자가 17명, 교육 목회자(디렉터)가 29명, 청소년부 목회자(디렉터)가 30명, 유년부 목회자(디렉터)가 123명, 상담 목회자 7명, 캠퍼스 목회자 2명, 음악 목회자(디렉터)가 71명, 행정 목회자 12명, 여성전담 목회자 8명, 노인전담 목회자 5명, 대학의 교수 목회자 또는 행정 목회자 79명, 기타 18명 도합 403명으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778.

13) Debra B. Hull, Kathy J. Pulley,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Ibid.*, 779-80.

14) Glenn M. Zuber,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8-9.

로 나타났다.

2001년에 발행된 <목회 주소록>(2001 Directory of the Ministry)에 의하면, 담임 목회자 또는 협력 목회자가 1명, 부목회자가 56명, 교육목회자(디렉터)가 31명, 청소년부 목회자(디렉터)가 87명, 유년부 목회자(디렉터)가 258명, 상담 목회자 14명, 캠퍼스 목회자 17명, 음악 목회자(디렉터)가 147명, 행정 목회자 1명, 여성전담 목회자 34명, 노인전담 목회자 8명, 대학의 교수 목회자 및 행정 목회자 154명, 기타 71명 도합 879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6개주에서 11퍼센트의 교회들이 적어도 한 명이상의 여성 목회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⁵⁾

여기서 우리는 1997년 403명이었던 여성 사역자들이 불과 4년만인 2001년에는 그 숫자가 배 이상인 879명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1924년부터 1940년까지 동경에 주재한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및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에도 여성 사역자들이, 비록 그들이 모두 전도사들이었기는 해도 다수가 존재했었다. 서울 아현동 소재 성경훈련원의 졸업생 임화순, 이권신, 평화일 등이 심방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해방 후 재건된 유약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심방 전도사뿐 아니라, 단독 목회자들도 제법 있었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들을 보면, 안영숙, 임혜숙, 전도희, 하복례, 김현숙 등의 여성 사역자들이 나오고, 이들 가운데 임혜숙과 전도희는 단독 목회자였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협의회는 여성 사역자의 교역자회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 목회를 하는 여성 사역자가 없다. 극소수의 교회들만이 심방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 전도사들을 두고 있을 뿐이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는 2009년 7월 23일 서울기독교대학교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 안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성 목사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전도사 신분을 가진 여성이 단독으로 목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0여명에 가까운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총회는 2000년 10월 30-31일 제65차 정기총회 때 여성 안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2001년 10월 25일 제66차 정기총회 때 통과시켰고, 지금까지 수십여 명의 여성이 총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18년 9월 17일 개최된 제83차 정기총회록에 의하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등록된 목사는 총 77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 목사가 26명 정도로서 전체 목사의 약 3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총회록에 의하면, 2018년 현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는 남성 목사 51명, 여성 목사 26명, 남성 장로 7명, 남성 전도사 3명, 여성 전도사 7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15) Debra B. Hull, Kathy J. Pulley,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Ibid.*, 780-81.

나타나 있다.

나오는 글

지금까지 유대교, 신약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 서 간략히 기술하였다.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둘째, 신약시대 모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여성 선지자/예언자들이 있었다.

셋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지역교회를 감독하고 목양하는 장로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1세기 말까지는 사도, 전도자, 선지자(예언자), 교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순회 목회자들이었다.

넷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갈 3:28). 구원에 남녀의 차별이 없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행 6:4) 목회사역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다섯째, 그리스도교는 4세기말부터 국가종교체제아래 놓이게 되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하는 미사의 제사화로 인해서 장로들이 제사장으로서 둔갑되어 계급화 되었고, 설교와 대표기도가 순서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4세기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역교회 공동체들에서 떠돌이 순회 목회자 개념의 전도자, 선지자, 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여성 감독자와 목양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여섯째,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장로들은 16세기에 칼빈과 존 녹스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이 무렵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교회체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시의회가 전통에 따라 여성을 배제한 남성들만으로 치리 장로들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교회체제 아래에서조차 16세기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들은 임기가 제한된 평신도 선출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실용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일곱째,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출입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점과 문이 그분의 육체임을 강조하고 있다(요 10:9, 히 10:20). 예수님은 문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상징하는 지성소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써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히 10:19) 하였고,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히 10:22) “새로운 살 길”(히 10:20)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만인사제의 의미이다.

여덟째, 루터, 츠빙글리, 칼빈, 부처, 녹스는 본래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이었고, 국가종

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영국교회가 다 국가종교였으며, 국가종교에 반대하여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파와 청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나 국가는 이들을 역사나 화형으로 다스렸다.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장로제도는 평신도 대의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의해서 여성들을 배제시킨 채 남성들만으로 뽑힌 장로들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제도였다.

아홉째, '목사'라는 호칭은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로써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시대나 가톨릭미사에서처럼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제단도 사제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만인사제의 의미는 사제체제를 엄히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종교개혁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제도가 분명 평신도 대의제란 점에서 볼 때 여성이 선출직 장로나 설교자 또는 전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열째,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제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참고서적

- “Four branches of Judaism.”
https://media.lanecce.edu/users/borrowdalej/rel203_f13/jewish_sects.html. [2018년 9월 16일 인용].
- Judaism101. “Jewish Liturgy” 및 “Torah Readings.” <http://www.jewfaq.org/readings.htm>. [2018년 9월 16일 인용].
- Pliny Epistles 10.96 and 97. Richard Hooper Tr.
- 강원돈. ‘교역윤리 3: 교회 치리회 구성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강원돈의 신학아카이브>. <http://socialethics.org>, 에세이_59번. 2010년 2월 22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 왕대일. “예언자와 선지자 - 예언서 읽기(2).” <기독교타임즈>,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2>, 2003년 1월 23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6.
- Williams D. Newell. Et Al.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 Zuber, Glenn M.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 이형우 역주. <히벨리투스 사도전승>.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정남수외,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왜관: 분도출판사, 1993.